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SNU 80 Years
1946-2026

서울대학교역사기록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무한한 상상
담대한 도전
새로운 미래

서울대학교 기록관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SNU 80 Years
1946–2026

서울대학교역사기록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

상설전시

관람안내

관람시간

평일 10:00~17:00

관람요일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
홈페이지 참고
(archives.snu.ac.kr)

관람료

무료

전시를 들어가며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광복이 얻은 대표적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국은 비록 미국 군정 치하이긴 하지만 국립 서울대학교를 개교함으로써 비로소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독립적인 교육 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 처음 설립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으나, '민족의 대학'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에서 손꼽는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부

서울대학교는 광복 직후 국립대학 설립 논의 속에서 출범해,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건과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전후 복구와 종합화를 거쳐 1975년 관악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종합대학의 기반을 마련하며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2012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학교는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후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네소타 대학 총장의 서한 _1954


학생증 _1950년대 ~1980년대


1974년까지 동숭동 문리대 캠퍼스 정문에 붙어 있었던 동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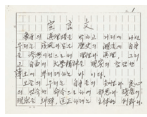

한국 최초의 대학출판부로 1947년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첫 도서 「신세기의 원자세력」 _1948


공과대학 강대갑 학생이 입었던 교복 _1971

2부

오늘의 서울대학교는 일제강점기 한국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노력, 전쟁기 학업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택, 그리고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한 저항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는 시대마다 사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한국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내 집회 전경_1980.5.2.


1960년 4월 19일 문리대 학생들이 발표한 4·19선언문_1960



김민기 앨범_1972

3부

서울대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 교수 외에 교직원도 있고 경비와 청소를 맡은 분도 있으며 식당, 매점 등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 서울대사람들은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넘어서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술계는 물론 문화와 과학, 경제와 정치 분야 등에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이들은 세상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와 기여, 이것은 서울대학교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지켜가야 할 약속입니다.

전시를 나가며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모를 수 없는 정희성 시인의 유명한 시구입니다. '관악을 보라'가 아니라 '보게 하라'는 1971년 관악캠퍼스 기공식에서 대학원생이던 시인이 내리친 준엄한 죽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하며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